

ISSN 2733-8258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05

2020. 11. 12

www.nafi.re.kr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0. 11. 12

Vol. 05

ISSN 2733-8258

발행일 2020년 11월 12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연구 보고서로서, 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 I. 미래를 대하는 공통점: 긍정미래는 기대, 부정미래는 회피
- II. 고령화는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다
- III. 과거의 무기로는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 IV.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들
- V.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참고 문헌

● 미래를 대하는 공통점: 긍정미래는 기대, 부정미래는 회피

- ▶ 미래는 추상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계획을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 ▶ 특히, 사람들은 긍정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부정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령화도 그렇다.

● 고령화는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다

- ▶ 지금까지 고령화는 인구구조에서 고령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과 개인의 인생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을 주로 의미했다.
- ▶ 이제 고령화는 인구구조와 인생길이 변화를 넘어서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대응전략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 과거의 무기로는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 ▶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백년대계로서 교육과 고령화가 그렇다.

●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들

- ▶ 사회적 차원: AI가 중요할까 고령화가 중요할까, 청년문제가 중요할까 고령자 문제가 중요할까, 전략은 누가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
- ▶ 개인적 차원: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 우리는 분명한 인생계획이 있는가, 고령자 문제는 누가 가장 잘 해결할까

●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 ▶ 고령자 부양사회에서 고령자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 ▶ 고령화에 대응한 스크루지전략 도입
- ▶ 고령자가 직접 만드는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 ▶ 고령자가 기여하는 국민건강 국가전략
- ▶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
- ▶ 데이터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I. 미래를 대하는 공통점: 긍정미래는 기대, 부정미래는 회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다.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힘들다. 미래가 가지는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한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20년, 30년이 넘는 먼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은 말할 것도 없다. 개인의 긴 인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또다른 특성의 하나는 **긍정미래와 부정미래에 대한 전혀 다른 대응방식**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한다. 하지만 미래에 올지도 모를 나쁜 것, 부정적인 결과, 힘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다가올 미래에 경품이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린다. 관련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 문제, 재난재해, 부정적 시나리오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나 회피한다. 자신의 인생 후반전에 펼쳐질지도 모르는 부정적이고 힘든 미래도 그 중의 하나다.

고령화 이슈는 개인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부정적인 문제들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개인차원에서는 정년을 넘어서도 일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없다. 나이들면 건강도 나빠지고 병도 들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런데 왠지 100세를 넘게 살게 될지도 몰라 불안하고 막막하다. 한마디로 장수가 오히려 재앙이 될 것 같다.

국가차원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비와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고령자 인구비중은 점점 늘고 대응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대로 두면 고령화는 한마디로 **암울한 미래상**이다. 암울한 미래는 누구나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개인도 국가도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에 소홀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고령화의 암울한 미래상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고령화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차원에서도 국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II. 고령화는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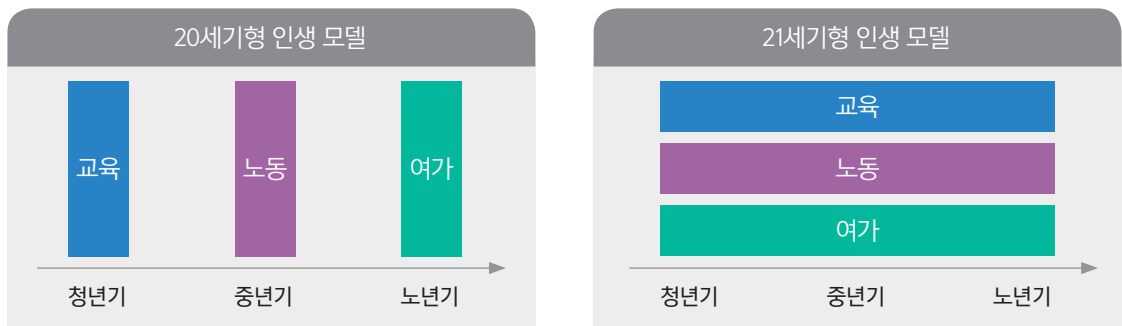
고령화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고령화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첫째는 한 사회의 인구구조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현상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고령화를 규정짓는 또 다른 현상의 하나는 개인의 인생길이가 기존보다 길어지는 현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0년에는 32세이던 것이 1960년에는 55세, 2019년에는 83세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가 고령화를 설명하는 주요현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고령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필자는 고령화를 설명하는 제3의 현상을 추가하고 싶다. 바로 **고령화는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평균수명 60세, 70세였던 20세기까지의 표준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우고, 젊어서 일하다가 은퇴해서 잠시 노년을 지내다 인생을 마치는 모델이다. 교육과 학습, 일과 활동, 여가와 휴식이 서로 분리되어 인생 전반부, 인생 중반부, 인생 후반부에 각각 집중되어 있는 모델이다.

[그림 1] 고령화는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다: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그러나 21세기의 표준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수명도 60세, 70세에서 100세, 120세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수명의 변화뿐 아니다. 평생동안 교육과 노동과 여가를 병행해서 수행해야 하는 시대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마디로 인생모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인생모델이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21세기 고령화의 진정한 변화모습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 변화를 넘어서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과 개인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다.

Ⅲ. 과거의 무기로는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앨빈 토플러 -

앨빈 토플러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과거의 무기로는 미래를 대응하기 어렵다.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21세기에는 더욱더 그렇다. 특히, 교육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무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래를 잘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준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고려한 미래준비는 더욱 어렵다. 미래준비보다 당장 현재를 대응하며 살아가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차원을 넘어 수많은 국정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럴수록 긴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도 함께 준비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현재만 대응하면서 살아가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너무도 길어지고 있다. 멀리 미래를 보고 미리 준비할수록 긴 인생을 훨씬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21세기에는 교육과 함께 고령화 대응도 또 하나의 백년대계가 되어야 한다. 1년, 5년 단기계획이 아니라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설계할 때다.

과거의 무기로는 더 이상 미래에 대응할 수 없는 시대다. 과거의 사고, 과거의 무기를 버리고 원점에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미래에 대응해야 할 때다. 개인 관점의 인생 대응전략도 국가 관점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도 마찬가지다.

IV.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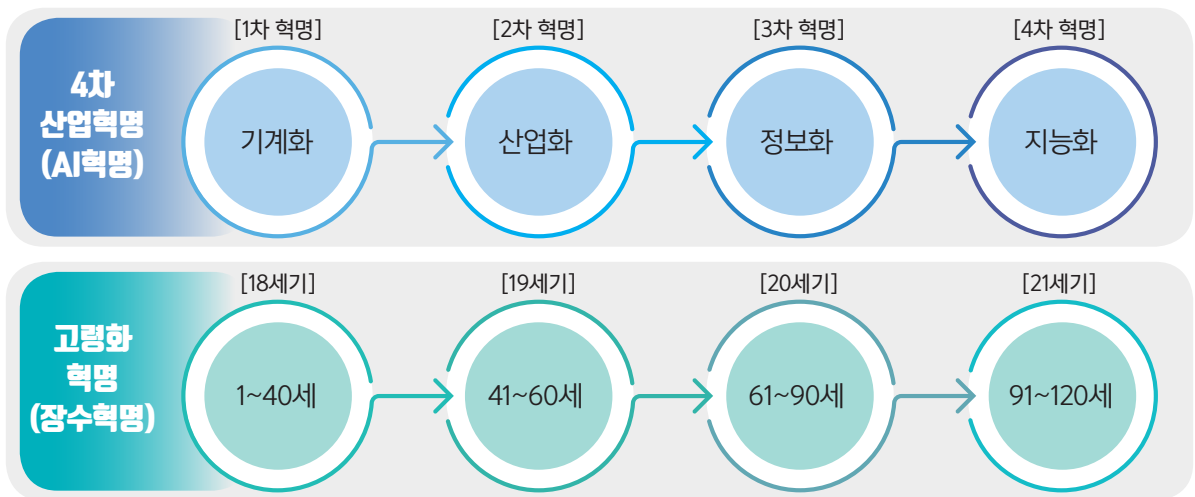
● 사회적 차원의 고령화관련 질문

▶ AI가 중요할까 고령화가 중요할까?

인류 역사에 있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말 독특한 시대다.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산업화,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를 향해가는 기술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와 AI기반의 지능화 확산이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AI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2] 21세기의 두 혁명,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혁명



AI혁명이 기술혁명인 데 비해 고령화혁명은 인간 자체의 혁명이다. 평균수명 60세, 80세를 넘어 120세, 140세를 향해가는 장수혁명이다. 사람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자신의 수명에 비해 40여년, 50여년의 새로운 생명을 추가로 선물받을 수 있는 인간생명 혁명이다.

AI혁명이 더 중요할까 고령화혁명이 더 중요할까? 사회적으로는 둘 다 너무도 중요하다.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차원에서는 고령화 혁명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 청년 문제가 중요할까? 고령자 문제가 중요할까?

청년은 취업해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생 제1막을 시작하며 성장해야 한다. 고령자는 인생1막을 마치고 인생2막, 인생3막도 잘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년 문제도 고령자 문제도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년문제와 고령자문제가 trade-off관계라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있는 듯하다. 특히, 고령자문제 해결에 신경쓰다보면 상대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소홀할지 모른다는 고정관념 내지 편견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 일자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기우라고 본다. 실제로도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상충관계 또는 Zero-Sum 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 또는 무관계임이 검증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청년문제도 고령자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 적극적인 노력도 가능해지고 정책효과도 커진다.

불필요한 걱정과 고정관념으로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손상되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청년 문제와 고령자문제 모두 너무도 중요하다.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부족하다.

▶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은 누가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은 거의 모두가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도로 만들어왔다. 탑다운 방식의 국가전략 설계다. 물론 이 방법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도 필요하다.

문제 당사자들이 직접 국가전략을 만드는 것이 그 예다. 고령화문제의 당사자인 고령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다.

자신들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추가작업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펼쳐질 고령자 자립사회 전략을 만드는 데는 이런 방식이 매우 적절할 듯 싶다.

● 개인적 차원의 고령화관련 질문

▶ 우리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자신이 몇 살까지 살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예상수명을 추산해볼 수 있다. 과거의 통계치, 미래 추정치, 과학자와 미래학자들의 예측치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인 1920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32세였다. 1960년에는 55세, 2020년 현재는 약 83세다. 100년 사이 평균수명은 51년이나 증가했다. 단순 계산해보면 1년에 평균 0.5년 정도의 평균수명 증가가 있는 셈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에 73만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현재 803만명이다. 2040년에는 1,666만명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2020년 현재 100세 이상 인구는 약 2만명이지만, 이 수치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120세 시대 도래의 예시



< 2015. 2. 23. Times지 표지 >



< 2016. 4. 1. KBS 명견만리, 120세 시대 쇼크 >

훨씬 더 과감한 추정치들도 많다. 2015년 2월 23일자 Times지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평균 142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This baby could live to be 142 years old)’라는 특집을 실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교수는 2016년 KBS 명견만리에서 ‘120세 시대 쇼크’란 제목으로 장수혁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보수적이든 전향적이든 자신이 몇 살까지 살게 될 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예상수명을 계산할 때 현실적인 방법은 수명구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먼저 90세, 95세처럼 보수적인 예상수명을 정한다. 다음에는 100세, 120세 등 자신이 최대한 장수할 때를 가정한 전향적인 수명도 정해본다. 그러면 95~120세가 자신의 수명구간이 된다.

▶ 우리 각자는 남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가?

나의 예상수명이 100살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현재의 내 나이가 55세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나에게 남게 된다. 제대로 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개인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계획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다.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라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게 된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자. 2주일 뒤에 시험이 있으면 앞으로 2주일간 시험공부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다. 입시 준비도 마찬가지다. 1년 뒤에 대학입시가 있으면 지금부터 1년간 어떻게 최선을 다해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그런데 40년, 50년에 걸친 인생계획을 세우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자신도 없다. 그러나 인생계획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를 만든다. 그날그날 살아가느냐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의 차이이다.

‘인간이란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라고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인생에서 특히 5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아래와 같이 건강, 학습, 일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 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건강관리, 운동, 식생활, 의료 등
- ② 정신을 훈련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 학습, 명상, 인성 등
- ③ 삶을 지탱하는 수입과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일, 돈 등

▶ 고령자 문제는 누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령자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일까? 지자체일까? 아니면 기업일까? 정부, 지자체, 기업도 고령자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은 고령자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고령자 자신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는 자기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고령자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고령자문제는 고령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고령자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고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될 때 교육과 학습의 효과도 커진다. 고령화대응도 마찬가지다. 고령자 각자가 남은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될 때 고령자문제도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풀어갈 수 있다.

V.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 고령화 부양사회에서 고령자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2006년 이후 정부는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어오고 있다. 2021년~2025년 간에 걸친 제4차 기본계획도 작성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고령화 대응정책은 고령자 부양사회를 전제로 한 국가전략이었다. 고령자를 복지대상자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자립하려는 고령자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고령화 대응정책도 모듈화가 필요해졌다. 예를 들어, 병들고 자기부양이 어려운 취약 계층으로서의 고령자층과 여전히 일할 의욕이 있고 사회활동을 원하는 건강하고 자립가능한 고령자층으로 구분된 별도의 고령화 대응정책이 각각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 고령자 부양사회에서 고령자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또한, 이제 더 이상 고령화는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수명이 기존보다 훨씬 길어졌고, 국민 누구나 중장년을 거쳐 고령자로 가게 되어 있다. 고령화는 이제 국민 모두의 문제다.

따라서, 고령자 자립사회, 국민 전체를 염두에 둔 새로운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이 필요한 때다. 고령화 대응정책은 노인지원정책을 넘어 국민전체의 생애설계와 인생관리 지원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 고령화에 대응한 스크루지전략 도입

사람들은 미래의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반면, 미래의 부정적인 가능성은 애써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가올 자신의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대로 갈 경우 30년 후의 자신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인간관계 등이 어떻게 변할지 생생하게 보여주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준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영감의 이야기가 유용한 예다. 스크루지영감은 지독하게 인색하고 차가운 구두쇠였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령을 차례로 만나, 이대로 가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한다. 자신의 미래모습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계기로 스크루지영감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다.

국가와 개인이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스크루지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인구 전체에서 고령자 비율은 30%, 40%를 넘어가고, 복지와의료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 사회가 부닥칠 암울한 미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낼 필요가 있다.

개인차원에서도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100세를 넘기는 자신의 모습, 정년 이후에 적절한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뚜렷한 기술도 없어 30년, 40년이나 되는 긴 인생 후반전을 힘들게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야 한다.

이렇게 고령화로 인해 부닥칠 암울한 미래와 고령화 시대에 잘 대응해서 얻는 밝은 미래를 생생하게 대비시킨 고령화 스크루지전략을 만들고 전 국민이 체감하면서 배우고 느끼게 해야 한다. 스스로 체감하면서 배우고 느낄 때 고령화에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 고령자가 직접 만드는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시대가 변했다. 디지털의 영향으로 일반국민이 그 어느때보다도 똑똑하고 스마트한 시대가 되었다. 다수의 국민이 함께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은 놀랄만큼 정확한 해답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국민공감도도 높아진다.

정부와 전문가만 참여해서 국가전략을 만드는 데서 벗어나 더 나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똑똑하고 스마트한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모두가 지향할 미래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미래전략을 함께 만드는 것이 그 예다. 고령화가 그 대표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 정부일까? 기업일까? 아니다. 고령화 문제를 푸는 진정한 답은 고령자에 있다. 고령화 문제의 정체와 문제의 본질은 문제의 당사자인 고령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고령화의 진정한 해결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당사자인 고령자가 직접 참여해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드는 국민참여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을 함께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답이 있다. 고령화의 답도 고령자에 있다. 고령자가 함께 모여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본다. 향후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좀 더 다듬어져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 프로세스(예시)

1. 공모를 통해 50세 이상 전국의 국민 1천명을 대표로 선발하여 고령화 국가전략 국민 참여단을 구성한다.
2. 고령화의 정체와 본질,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찾기 위한 숙의과정을 6개월간 진행한다.
3. 예를 들어, 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로서 건강증진, 생애교육, 인생다모작의 세 가지 이슈를 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토론하고 제안하게 한다.

4. 1인당 참여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면 50만원x6개월x1천명으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사회적 가치는 수십조원이 될 수도 있다.
5.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할 수도 있고, 한국형 뉴딜의 사회안전망과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6. 고령화 국가전략 국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에 기초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적으로 전략을 다듬는다.
7. 그 결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고령화의 당사자인 고령자들이 공감할 수 있고 5년 임기 정부를 넘어 20년, 30년간 살아남을 대한민국의 고령화 대응 중장기 국가전략이 완성된다.

● 고령자가 기여하는 국민건강 국가전략

고령화로 인생이 더 길어져 건강은 더욱더 중요해졌다. 고령화에 대응해서 국민 전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제1공통과제는 건강증진이다. 건강은 고령자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제1이슈다. 고령자가 되어서 건강관리를 하면 이미 늦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이후 오랫동안 지덕체를 강조해왔다. 덕분에 최단시간에 세계빈곤국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10대 경제강국이 되었다. 이제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전 국민을 위해 건강을 위한 체육과 스포츠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학교에서 적어도 매일 한시간 이상은 체육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을이든, 전국지역 어디서나 건강과 체육을 위한 투자와 활동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전국의 지자체가 주도해서 생활체육시설, 산책코스 등 전국 어디서든 국민을 위한 건강체육 인프라는 대단히 잘 갖추어져 있다. 지금부터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그 환경을 활용해서 자신의 건강체육 투자를 일상화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국민을 위한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고령자들이 주도하도록 설계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전체국민 중에서 건강에 신경을 가장 많이 기울여야 하는 층은 고령자들이다. 따라서 고령자가 주도하면 자신에게도 좋고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의 생활화’를 추진해보자. 고령자 자신의 건강증진도 꾀하면서 고령자들의 사회기여 활동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자. 고령자들이 자신의 건강도 더욱더 증진시키면서,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내는 이런 역발상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고령자를 활용한 국민건강 국가전략을 만들어보자.

국민건강전략은 대한민국의 최우선 중장기 국가미래전략

- 만일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국가전략을 만든다면 국민 건강전략을 제안하고 싶다. 중장기 미래를 고려한 긴 안목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 개인차원에서도 파급효과 및 투자 대비 효과가 최고이기 때문이다.
- 우선 국가 차원에서 한번 보자.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0년대만 해도 평균수명 60세 시대였다. 지금은 100세를 넘게 사는 시대다. 120세를 넘게 사는 시대도 머지 않았다.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 사회복지비용과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의료비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09년 12.5조원이던 노인 의료비는 2020년 35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에 58조원, 2035년에는 12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 만일 국민 대부분이 건강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사회복지비와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어림잡아 연간 100조원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 ※ 총인구 5천만명 x 1인당 건강증진효과 연간 최소 2백만원(필자 개인적 추정) = 연간 100조원
-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라. 국민건강은 활력과 자신감,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근간이다.
- 개인차원에서는 어떨까?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다. 100세를 사는 것은 이제 흔해졌고, 머지않아 100, 110세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올 것이다.
- 나 자신이 110세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적어도 90세까지는 뭔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 모든 국민에게 건강은 인생의 토대다. 인생이 훨씬 길어져 건강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고, 따라서 전 국민이 건강을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가미래전략으로 국민건강전략을 택해야 하는 이유다.

●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

한 번 배워 평생 써먹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변화, 기술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인생의 길이도 훨씬 길어졌기 때문이다.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고기를 잡아 주면 하루를 살게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게 할 수 있다.’ 수명이 훨씬 길어진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문구다.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물고기 잡는 법은 어떤 걸까? 필자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싶다. 물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과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한 실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가칭)국민의무재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이유다. 청소년기에 인생 전반전을 위한 1단계 국민의무교육을 받고, 중장년 이후에 인생 후반전을 위한 2단계 국민의무재교육을 다시한번 받는 것이다.

SI와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다시한번 국민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다. 현재와 같이 원하는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모두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때다. 모든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국민재교육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은 짧아도 좋다. 중장년과 고령자를 위한 재교육은 1년만 해도 충분하다. 긴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경륜이 있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육해도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시설을 추가로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폐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과 초중등학교를 활용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2년제 대학 등 대학교를 활용하면 된다. 교사도 기존의 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중장년과 노인이 교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도 있다.

중장년 및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도입방안(예시)

빚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했고 점차 중학교 의무교육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도 세계 최고였다. 지금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동력도 국민교육의 힘이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공통교육을 9년동안 약 1만시간에 걸쳐 받아오고 있다. 이런 국민의무교육의 힘으로 각 개인은 30여년간의 직업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세 이후에도 새로운 50여년의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가치있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수는 없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전 국민이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2의 국민의무교육, 국민의무재교육이 필요하다.

국민의무재교육을 실시하되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1백시간 정도의 필수공통 교육시간을 배정하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1천시간 까지 직업활동을 위한 추가교육 등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국가 전체로 확산하기 전에 특정 지자체의 특정지역을 선정해 국민의무재교육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면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국민교육열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이, 중장년·고령자를 위한 국민교육으로 100세 현역시대의 글로벌 선진모델이 되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자산인 인재강국 대한민국만이 이를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기적이다.

● 데이터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무슨 문제든 문제의 근본원인을 알면 그 문제를 풀기는 훨씬 쉬워진다. 문제의 패턴과 변화추이, 문제와 관련된 미래예측까지 가능하다면 금상첨화다. 고령화문제도 마찬가지다.

데이터시대, 데이터기반의 AI시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IT강국이다.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철저히 데이터분석기반의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고령화관련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지금도 축적되고 있다. 주민DB, 국민건강 DB, 고용DB 등이 있고, 행복e음에는 고령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복지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이동통신 및 온라인사업자들은 전 국민의 통신, 온라인활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고령자통계, 고용정보원의 고령자 패널조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등 고령자에 초점을 둔 데이터도 다양하게 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20대부터 평생을 추적하는 생애패널데이터도 새로 만들 수 있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건강, 복지, 고용 등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에 관해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20년 이상에 걸쳐 축적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면 각 개인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령자 개인별로도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는 흩어져 있는 고령화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면 지능적이고 근본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분석기반으로 고령화문제에 대응할 경우, ①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의 정체와 본질을 좀 더 객관적이고 지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② 개인 맞춤형 고령화 대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③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국가전략도 만들어갈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현곤,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행복에너지, 2020. 7.
 김현곤, AI와 고령화시대의 일과 교육, 「Future 2030 시리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10.
 김현곤, 인생 르네상스 행복한 100세, 행복에너지, 2017. 3.
 김현곤,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과 새로운 접근법: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Near & Future,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4.
 김현곤,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미디어SR 전문가칼럼, 2020. 10.
 비나 벤카타라만, 포사이트, 더난출판, 2019. 12.
 이건희, '원점에서 생각하자', 이건희 에세이, 동아출판사, 1997. 12.
 주정완, 인구 감소의 원년,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중앙일보, 2020. 10. 26.
 최성재, 생애설계와 시간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5.
 M. W. Riley & J. W. Riley Jr, Age integration and the lives of older people, Gerontologist, 34, Feb 1994.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